

시비가 원용을 이룹니다

법전(조계종 종정)



우주법계가 이로부터 이루어지고 모든 만물이 이곳에서 생명을 얻었으며
성인과 범부의 근본이 되는 신령스런 광명이 여러번 목전에 떠오르니
황금 닭이 공겁이전(空劫以前) 소식을 알리고
금오(金烏)와 옥토(玉兔)는 대지묘용(大地妙用)을 빛어냅니다.

산정(山頂)에는 물결이 넘쳐 하늘에 닿고
바다 밑에 먼지가 일어 황금을 이룹니다.
집집마다 무쇠나무 항기가 가득하고
불어오는 훈풍(薰風)에 천지가 윤택합니다.
불속에 목우(木牛)는 무생가(無生歌)를 노래하고
구름 위 철마(鐵馬)는 백척간두에서 나아갑니다.

사람마다 역순(逆順)의 기쁨로 무가보(無價寶)를 얻어
꿈은 깃들고 굶은 것은 놓아 버리니
시방의 종지(宗旨)가 한곳으로 모이고
정과 사의 시비가 원용을 이룹니다.

오늘 아침 산승이 본분 철주(鐵鑪)를 한번 치니
천지가 뒤집히고 삼악도가 땅 비었습니다.
이것이 송구영신의 방일득이(放一得二)의 도리입니까?
을유년의 출신지기(出身之機)입니까?

대중(大眾)은 회마(會魔)일것인가!

제불이 환희공찬하길

혜초(태고종 종정)



금오(金烏)와 옥토(玉兔)가 불정상전(不淨常轉)하니
묵은해가 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난세지본(亂世之本)은 대립과 갈등이요, 투쟁지원(鬪爭之原)은 탐욕과 독선에 기인하느니,
명현자(明賢者)는 법과 도를 숭상하니
둔근자(鈍根者)는 잡기(雜技)와 소리(小利)에 집착하여
인본의 대의를 그르치니 어찌 통석(痛惜)치 않으리오.
인간은 저마다 우주의 창조자요 세상의 주인이니
세정(世情)이 혼탁함은 주인의 책임이요,
만유가 청미(淸美)할 또한 주인이 소작(所作)한 바니
금년에는 모든 사람이 자정지덕(自淨之德)을 발휘하여
만인이 공수합력(拱手舍樂)하고 제불이 환희공찬(歡喜共讚)하는 보람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도(懇禱) 축원합니다.

주객이 하나되어 태평가를

도용(천태종 종정)



靈波假滿泛柳檀(영파가용범전단)
照日紅光香霧間(조일홍광향묘애간)
苦海頓成寂光土(고해돈성적광토)
慈航不往普陀山(자항부주보타산)

신령한 물결 웅숭쭉 거북한 관세음 때오르니
햇빛보다 밝은 광명 아득한 노을 새로 비추네
고해는 갑자기 불국세계 되었거니
자비의 배는 보타산에 머물지 않네

금 닭이 크게 우니 천지가 금빛으로 열리는구나.
탐욕을 털어내니 연꽃이 피어오르고,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모두가 다정한 벗이로다.
그 중에 아름다운 모습은 남북이 하나 되고,
주객이 하나 되어 태평가를 부르는구나.

자비로 진정한 밀엄정도 이뤄야

혜일(진각종 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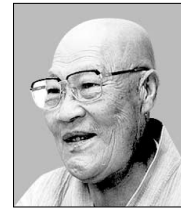


청정하면서도 고적(孤寂)한 불일(佛日)의 새아침
성서러우게 동해를 붉은 빛으로 물들일 때,
하늘의 청빈(淸彬)한 법기(法氣)를 머금은 계명(鷄鳴)의 소리는 땅의 수순하는 마음으로
검은(劫雲)을 몰아내고 삼라만상은 모두 자비의 빛을 받아
회합(和合)의 열매를 맺는 불사(佛事)의 모습을 짓는다.

중생은 부처가 아니고서 누구나 허물도 많고 실수(失手)도 있는 법이라.
이것을 알고 부끄러움을 깨달아 고쳐 나간다면 이 세상이 불보살의 세계와 다른 바가 없는 것이다.
저 조용하고 송고하게 떠오르는 새 아침의 해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다짐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 자비(慈悲)를 베풀어 나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밀엄정도(密嚴淨土)를 이루는 청정(淸淨)한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애경하는 마음이 부처

죽산(관음종 종정)



法界盡是 毘盧師(법계진시 비로사)
誰道賢愚 貴與賤(수도현우 귀여천) 체기害人 即自決(이기해인 즉자결) 爲他損身 是活路(위타신 신활로)
常常嚴飾 寂光殿(상상엄시 적광전)
愛敬老幼 皆如佛(애경노유 개여불)
은 세상이 모두 다 청정한 법신(法身)이거늘
잘못된 시비(是非)는 중생의 분별(分別)이라.
나 살려고 남 해침은 죽는 길이요.
남을 위해 손해(손해)는 사는 길이로다.
언제나 직광전(直光殿)을 장엄하여
애경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부처일세.

대승으로 거듭나는 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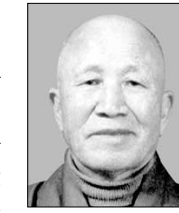
효강(총지종 종령)



우리 불교인들은 이 어려운 현실을 헤쳐 나가는 데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승지자들은 청빈한 생활과 청정한 수행으로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겠습니다.
불자들 또한 부처님 앞에서 오직 내가 잘되고 내 가족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복적이고 소승적인 불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 자신을 먼저 정화함으로써 사회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선도하는 참된 불자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도록 부처님 전에 서원합니다.

돌 쌓아 만리성 이루듯

동광(총화종 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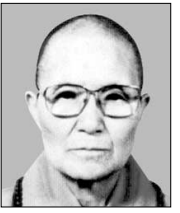


送申迎酉 新改革(송신영유 신개혁) 送舊甲申 覺回顧(송구갑신 각회고) 乙酉宗務 企劃成(을유종무 기획성) 前途宗團 有發展(전도종단 유발전) 一石橫築 萬里城(일석적축 만리성) 宗徒一同 大同結(종도일동 동대동결)

갑신년을 보내고 희망의 을유년을 맞이하여 지나간 해의 일들을 돌아보며 깨치고 개혁하여서 을유년 종무행정을 기획하면 종단 앞날에 발전이 있으리라.
돌 하나하나를 쌓아 만리성을 이루는데, 종도 여러분은 마음을 단결하여 매사에 대처하여 주시기 요망합니다.

생명에 자비심 넘치게

혜안(보문종 종정)



우주와 생명의 실상에 대한 통찰력과 깨개 생명의 절대적 가치에 대한 자비심에 뿌리를 두지 않은 모든 이념과 신념체제는 이분적 양 극단의 독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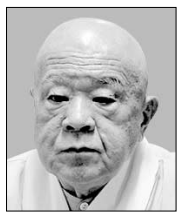
이변(二邊)의 양 극단에 집착하지 않는 공성(空性)의 연기를 선택한 붓다와 옹수보살의 지혜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절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존재와의 공존 공영을 철학한 신 붓다의 연기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사색하고 닦아감으로써 우주의 생명을 경이로운 눈으로 보는 인식의 지평을 넓혀갑시다.

법어 전문은 buddhanews.com에서

마음 밝혀 깨우치자

일공

(원용종 종정)



을유년 새해는 우렁찬 닭 울음소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니 천지가 열리어 불타의 지혜의 빛과 자비의 열기가 삼천대천계에 가득하여 진중(塵中)에 생연(生蓮)하듯 만상발생기(萬象發生氣) 하도다.
간혹은 아프고 힘든 삶이라. 이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어리석어 아무무면 증생이고 깨달으면 부처라 했으니,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밝혀 깨우침을 일구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동체대비로 경제 회생

지명

(조동종 종정)



갑신년을 보내고 을유신년이 밝아오도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가 편견과 야만, 정쟁을 멈추고 움추렸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전 아래 국민이 화합하고 동체대비심으로 어려운 경제 회생을 위하여 화합하고 양보하며 온 국민이 희망 넘치는 새해가 되 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강은 잠에서 깨어나

해곡

(열반종 종정)



을유년 동녘이 밝아오고 있다.
오천년의 한강은 잠에서 깨어나 백두산의 소나무는 눈을 털고 일어나고
대나무와 어울려서 고추밭고 숲밭고 짙음을 치고 새 생명 미륵을 생산하니 5억7천년의 윤회에 수레는 본래 여여한데 오고감이 어디 있나
춘란(春蘭)이 이슬 맺혔네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일세.

바람이 그물망 스치듯

연화

(미륵종 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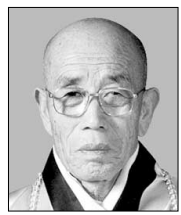


보낼 것도 맞이할 것도 없는 것이 평상심이라네.
오늘에 속아 살고 내일을 기약한들 얻을 것이 무엇이고
걸림 없는 바람이 그물망을 스치듯이 어느새 광음이 서신에 저무니 새아침 양운(陽運)을 바라노라.

본래면목 찾아가자

경조

(불입종 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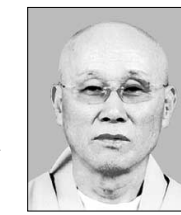


세상은 허공에 핀 꽃입니다.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넘쳐난 것이 없습니다.
생명불이는 모두가 원만한 부처님이지만 갖가지 업력으로 서로 다른 탈을 쓰고 차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부처님 닮은 마음을 꺼내쓰는 한 해가 되어 서로 해치는 일이 없는 살기좋은 세계가 되도록 모두가 스스로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화해와 용서로 화목을

혜봉

(해동종 종정)



何是新年 本分事(하시 신년 본분사)
木鷄一聲花自紅(목계일성 화자홍)
어떠함이 새해에 마땅히 할 일인가. 나무닭 한소리에 꽃이 스스로 붉구나.
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집과 편견으로 얼룩진 지난 한 해의 어두움을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 모두 화해와 용서로써 화목하여 풍요와 진실이 넘치는 세상을 이루어 봅시다.

대중공양이 제불공양

혜안

(무량종 종정대행)



아름다운 자연에 고맙고 만년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나 않았는지 자신의 말과 행동에 허물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용서와 참회로 얼룩진 갑신년 한 해를 말끔히 씻고, 티없는 창공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맑고 생기있는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아 지난 세월 빛진 자연에 감사하고 부모형제 이웃 사회에 감사함을 회향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마음이 불공이 아니겠는가. 대중공양이 제불공양이라 했으니.

창종공고 世界佛敎 海東元曉宗

설립취지문

현대 한국불교사회 특성은 다양한 종파분립형태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대사회가 민주화되어, 다양한 종교와 종파를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또한 긍정적 견지에서 보면 불교의 참여하는 교단의 발전과 함께 불교의 대승적 보살 사상을 다양하게 실천하고자 하는 방향제시이기도 하다. 불타의 근본적 현대사상은 현대사회, 국가, 세계인류가 지향하는 인류문화의 역사발전과 평화로운 문명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다양한 종교, 정치체제, 민족 간의 갈등을 초극한 인간성 공, 불성중심의 화해 평등정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사명을 요구받고 있다. 현대의 21세기에 요구되고 있는 그와 같은 종교사상은 불타의 근본사상을 회통한 원효성사의 화쟁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一心의 本覺(깨달음)으로 종도들은 함께 뜻을 모아 종교, 교단간의 진정한 대화와 화해, 전쟁 없는 無諍, 인류의 和解와 平和, 平等和合의 和諍의 역사를 창조하여 한민족의 平和統一을 발원하며 世界人類의 平和와 佛國淨土를 성취하기 위하여 이에, 世界佛敎 海東元曉宗을 創宗 선포하노라.

宗旨

- 1. 見成佛(경성성불) 2. 轉法教化(전법교화) 3. 和諍平和(화쟁평화)
- 1. 定慧行願(정혜행원) 2. 和合和諍(화합화쟁) 3. 衆善奉行(중선봉행)

입종공고

종조인 원효성사의 화쟁회통사상을 종단의 근본종지로 삼고, 현대 불교의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본 종단에 등록하고자 하는 사찰, 스님, 포교사, 법사님들께서는 언제든지 등록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1. 입종자격 : 승려, 포교사 (법사)
- 2. 구비서류 : 이력서, 승려도첩, 종단신상명세서작성
- 3. 자세한 내용은 총무원으로 연락요망

세계 불교 행동 원효종 총무원 총본산 보광사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293-1번지
- 전화 : (042)283-5896
- 휴대폰 : 011-769-0300 (동화스님)
- 팩스 : (042)285-0108

중정 벽운 해광 대종사 신년법어

甲申年 多事多難한 해가 가하니
雲霧滿天 如果日 貪嗔煩惱 不起處 一切衆生 寂靜心 世界人類 大和諍 乙酉新年 全國民 太平安政 大發願.

갑신년 다사다난한 해가 가니 어두운 구름이 맑게 개고 맑은 하늘에 해가 솟으니
. 탐내고 어리석고 번뇌망상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 일체중생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이다.
. 따라서 세계인류가 갈등과 투쟁하지 않고 큰 화합과 평화를 이룬다.
바라건대 을유년 새해에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태평안정한 가정과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발원하노라.

임원 및 발기인 명단

종정: 벽운 해광

- 총회회장: 창해종수 원로원장: 근봉성학 총무원장: 범공정산
- 규정원장: 동운혜원 교육원장: 청화보명 교무부장: 길성
- 총책기획실장: 동화영락 총무부장: 상운

- 서울동작구총무원장: 근봉 강원총무원장: 범성 충남총무원장: 혜중
- 울산총무원장: 지혜 경남총무원장: 상운 경북총무원장: 남운
- 갈성.경운.광운.금봉.남운.대영.도용.도일.득원.법경.범성.범은.보문.보경.상운.선예.성관.성문.성일.성해.운영.윤일.연화.원공.원오.원옥.월산.은덕.일봉.일문.정호.재연.지일.지산.지혜.진공.진광.청산.청화.태운.해초.현덕.현웅.해광.해덕.해정.해원.해일.김점순.김현모.박해원.보리심.이대우.이수봉.황순례.황선국.(가나다순)

부설: 1. 원효상사 사회교육원 2. 사회복지 문화원 3. 국제불교 포교원
* 종단 주요 원장, 부장, 총회의원, 전국 교구 총무원장으로 직무를 수행코자 하는 스님들께서는 총무원으로 연락바랍니다.